

#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심화에 따른 카드업계의 대응방안

임윤화 연구원

## 목차

- I.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심화 배경
- II. 주요 업권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 III.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붙임1〉 중금리대출 정의 및 시장구조

## Summary

최근 신용대출시장 금리양극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금리단층으로 우량 중신용고객도 은행대출 거절 시 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에서 10%p가량 상승된 대출상품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상품 출시 유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업권의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에 따른 업권 간 경쟁 상황을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요 업권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개별 중금리대출 상품 외에도 금융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증보험 연계상품인 사잇돌 중금리대출 I, II를 출시하고 있다. P2P대출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로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출범예정)은 참여 주주사 보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후 중금리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권 중금리대출 상품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고객접근성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용이성은 P2P대출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평균금리 15%의 중금리 카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6.2분기 국내 총 가계신용의 1.8%를 차지한다. 카드로는 중신용 고객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상품특성상 신용등급 4~6등급 고객에게 80%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카드사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로 연체율은 2%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업권이 높은 여신건전성을 유지하며 중금리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업권특성상 중신용등급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모델을 보유하여 적정금리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카드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중금리 상품과 카드로의 대출 방법과 기간 등의 차이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출신청시 매번 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카드로 특성상 타 기관 중금리대출 확대는 카드로 한도 축소 또는 거절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카드로 고객 유출 및 금리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다중채무자 증가를 경계하고,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의 장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여신건전성 강화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대출시장에서 카드업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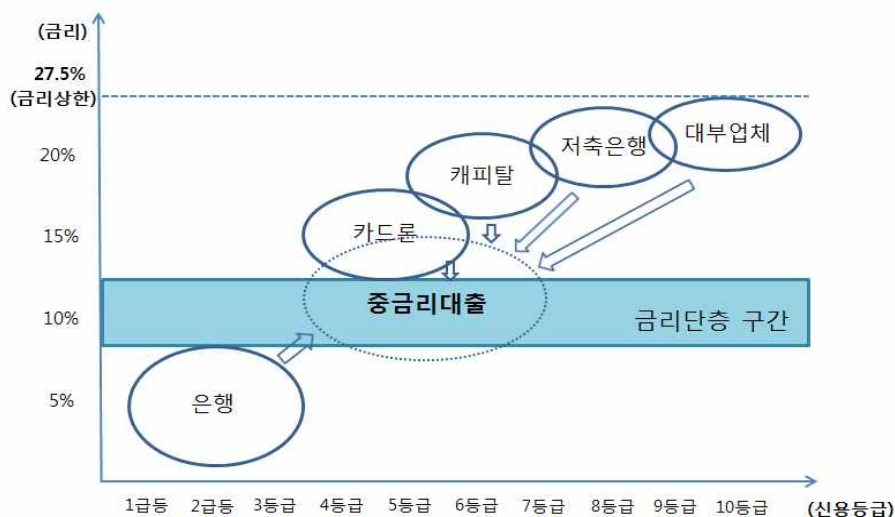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연구원 02-2011-0769/limyounh@crefi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여신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I.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심화 배경

- 최근 신용대출시장 금리양극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신용대출 금리가 연 3~6%인 은행권과 연 15~27.5%인 비은행금융권으로 양극화 되어 중금리 구간에서 단층현상 발생
    -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10% 전후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금융상품 부재
  - 금리단층으로 우량 중신용고객도 은행대출 거절 시 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 이용으로 이자비용 증가
    - 은행대출 거절 중신용고객은 신용도, 대출금 상환의지 등과 무관하게 10%p 가량 상승된 대출상품 이용
    - 이자비용 증가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용대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회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요구 증가

금융업권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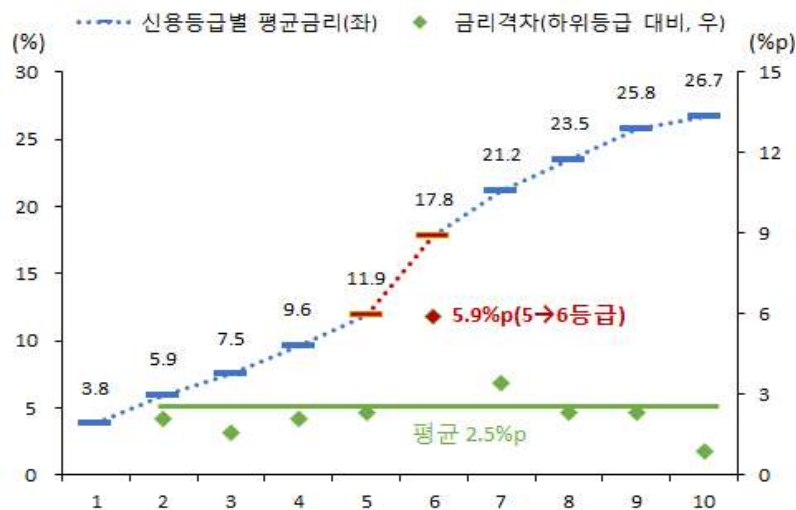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업권별 협회중앙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신용대출 금리양극화의 주요 요인은 중신용자에 대한 적정금리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sup>1)</sup>

-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부족, 평가시스템 미흡이 신용도 판별을 어렵게 하여 금리상승 원인으로 작용
  - 중신용자 대출은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금리 산출이 중요한데, 신용도 판별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최대로 상정하여 높은 금리 부과
    - 특히 5~6등급에서는 우량 중신용자 판별이 어려워 해당구간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격차가 5.9%p를 기록하며 신용등급간 평균금리차이(2.5%p)를 큰 폭으로 상회
-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높은 신용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중신용자 대출상품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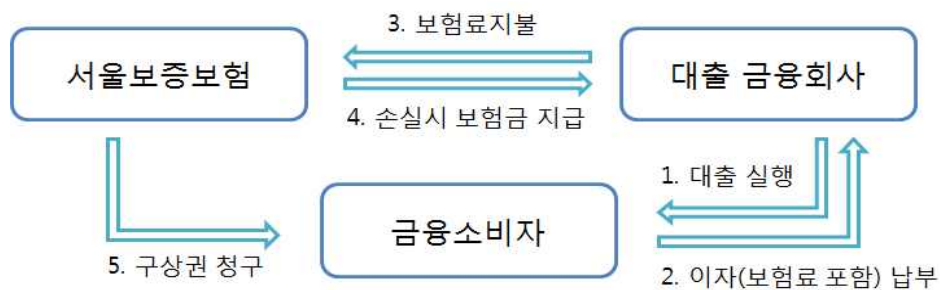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5.12월)

1) 신용리스크(Credit Risk)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상품 출시 유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개선(인센티브 부여,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sup>2)</sup>
  -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16년 하반기 본인가 예정)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추진
    - 보증보험 연계상품은 은행·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1.28)

-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여건을 마련
  - 중복대출 신청 실시간 파악 및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sup>3)</sup> 등 정보제공 강화
  -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 마련<sup>4)</sup>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여신평가모형 활용을 추진
- 인센티브 부여, 비교공시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 중금리대출 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01.28),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06.07), '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4) 행정자치부 보도자료('16.07.0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II. 주요 업권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 1. 시중은행

□ 위비모바일대출, 써니모바일간편대출 등을 비롯하여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으로 9개 시중은행에서 사잇돌 중금리대출 출시

- 과거 2005년 SC은행은 중금리 대출상품인 ‘셀렉트론’을 출시하여 한때 인기를 얻었으나 이후 부실 확대로 판매중단
- 최근 대표적인 중금리대출 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이 1,22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연체율 상승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연체율이 ‘16.1월 1.88%에서 ‘16.6월 3.3%로 상승하며 은행 평균연체율(0.67%) 상회<sup>5)</sup>
- ‘16.7월 9개 시중은행<sup>6)</sup>은 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사잇돌 중금리대출 출시
  -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6~10%의 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 최대 60개월간 제공되며 출시 한달만에 대출액이 600억원을 돌파
- 주요 고객층이 고신용자인 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우·불량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전성 확보 가능

#### 은행의 중금리대출 현황

(단위 : 만원, %)

은행	상품명	대상	한도	금리	실적
우리은행	위비모바일대출	신용등급 1~7	1,000	5.75~9.55	1,220억원
신한은행	써니모바일간편대출	신용등급 1~7	500	5.44~11.54	328억원
IBK기업은행	i-ONE스마트론	신용등급 1~5 신용등급 6~7	2,000 500	3.02~9.16	-
NH농협은행	NH EQ론	NH농협캐피탈 보증서 발급	1,000	-	-
KEB하나은행	하나이지세이브론	근로 또는 사업기간 3개월 이상	2,000	-	-
9개 시중은행	사잇돌 I	신용등급 1~7	2,000	5.8~10.2	737억원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5) 이데일리(16.07.13), “중금리 대출 ‘위비’ 연체 비상... 사잇돌대출도 불안”

6)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2. 저축은행

- 저축은행은 사잇돌 중금리대출Ⅱ를 비롯하여 사이다, 허그론 등 다양한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 ‘15.12월 출시된 SBI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사이다’는 출시 10개월여 만에 누적 1,5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
  - ‘16.9월 30개 저축은행<sup>7)</sup>은 보증보험 연계 사잇돌 중금리대출Ⅱ 출시
    - 사잇돌Ⅱ는 6~10%대 사잇돌Ⅰ을 보완하여 5~20% 사이의 금리공백을 메꾸는 한편 제2금융권 이용자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고 금융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sup>8)</sup>
  - 저축은행 주요 고객층의 신용등급은 은행고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대손률 관리가 중요
    - 신용등급별로 1~5등급의 불량률은 1% 미만이지만, 6~10등급의 불량률은 6.30~36.02%로 급증<sup>9)</sup>

###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현황

(단위 : 만원, %)

은행	상품명	대상	한도	금리	실적
SBI저축	모바일신용대출 (사이다)	만20세이상 내국인	3,000	6.9~13.5	1,500억원
JT친애저축	원더풀WOW론	만20세이상 직장인	5,000	12.0~19.9	720억원
웰컴저축	텐대출	만19세 소득증빙 가능한 일반인	3,000	8.9~19.9	-
KB저축	KB착한대출	연소득 1,200만원이상	3,000	6.5~19.9	-
신한저축	허그론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직장인	3,000	6.2~16.5	1,000억원
30개 저축은행	사잇돌Ⅱ	신용등급 1~8	2,000	15%내외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7) 대신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NH저축은행, HK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IBK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08.29),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

9)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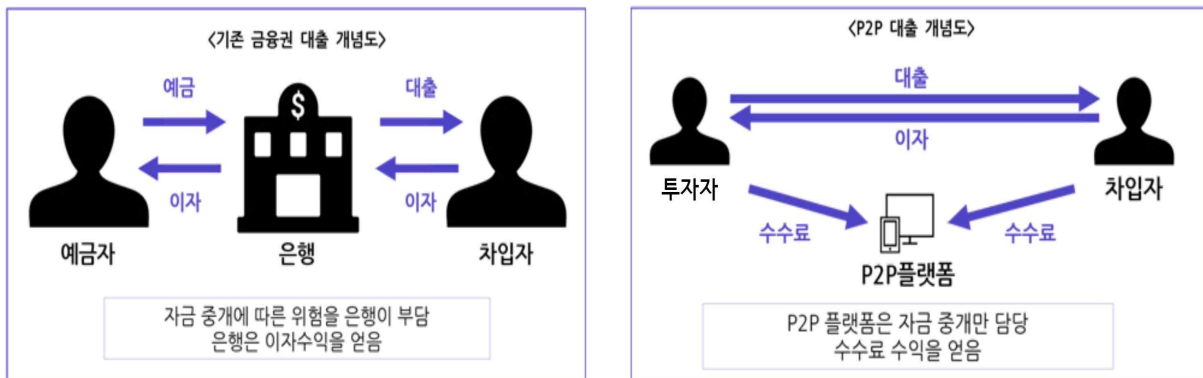


### 3. P2P대출업체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로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 제공

-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 공급
  - P2P업체가 대출에 대한 적정금리를 결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 이자 지급
- 차입자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비교적 높은 수익 획득
  - 대표적인 P2P업체인 8퍼센트의 평균수익률이 9.59%, 렌딩이 10.47%로 저신용자 비중이 높음에도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 제공

#### 은행 및 P2P 대출 개념도 비교



자료 : 네이버캐스트 'P2P 대출' 중 그림 재구성

- 금융기관이 자금중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P2P업체는 자금중개만 담당하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자 개인이 부담
  - 채무불이행 발생시 P2P업체에서 추심을 진행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
  - 8퍼센트는 '안심펀드'를 통해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장하지만, 대상 상품이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채권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안심료10)' 지불 필요

10) 안심요율은 채권 등급과 만기에 따라 상이하며 투자금액의 0.04~4.25% 수준



#### 4. 인터넷전문은행(출범예정)

- 참여 주주사 보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후 중금리대출 서비스 예정
  - 카카오뱅크는 기존 신용평가 데이터에 카카오와 주주사가 보유한 데이터(모바일, 온라인 활용 데이터 등)를 추가하여 다면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K-뱅크는 기존 CB사 정보에 통신, 결제 등의 정보를 추가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여 중신용 대출상품 제공
    - 다만, 참여기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식별정보 사용 여건 조성 필요<sup>11)</sup>
  - 시중은행 대비 낮은 운영비용이 경쟁력 강화 요인이나, 다양한 주주사의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용평가시스템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6.7.6)

1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7.1)」에 따라 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 5. 종합 및 요약

- 고객접근성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용이성은 P2P대출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
  - (고객접근성) 기존 계좌 보유수가 많은 시중은행과 비대면거래 편의성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은 고객접근성 보유
    - 반면, P2P대출업체는 제한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규 계좌를 모집해야하기 때문에 고객접근성이 다소 떨어짐
  - (대출용이성) 중금리대출이 주요 서비스인 P2P대출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은 승인구간 확대에 주력
    - 우량 중신용고객 선별을 위해서는 중신용등급에 대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필요
    - 시중은행의 사잇돌I은 출시 후 35영업일 동안 총 3만 3,463건이 신청되었으나 1만 7,986건(54%)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실제 대출건수는 6,545건으로 은행 자체심사에서 다시 승인자 3명 중 2명꼴로 탈락<sup>12)</sup>
  - (부실발생위험) 중신용시장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지 않는 금융업권이나 신규 시장진입자의 경우 노하우 부족으로 여신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대표적인 은행 중금리대출 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의 연체율(‘16.1월 1.88% → ‘16.6월 3.3%) 큰 폭으로 상승
    - P2P대출업체의 경우 부실발생위험을 P2P업체가 아닌 투자자 개인이 부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발생 가능

업권별 중금리대출 특징 비교

	고객접근성	대출용이성	부실발생위험
시중은행	고	저	중
저축은행	중	중	중
P2P대출업체	저	고	고*
인터넷전문은행(출범예정)	고	고	중

주 : P2P대출업체의 부실발생위험은 투자자 개인이 부담

12) 이투데이(16.08.29), “사잇돌 대출 보증 급증... 서울보증보험 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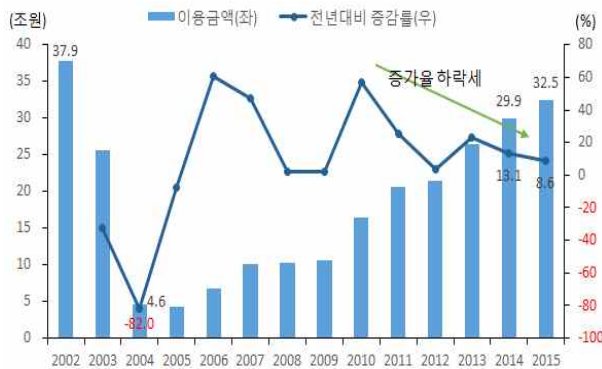
### Ⅲ.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1. 카드업계의 중금리대출 공급 현황

□ 카드업계는 신용등급 4~6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13~17%대의 중금리 카드로 서비스 제공

- 2016.2분기 가계신용에서 카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2015년 카드로 이용금액이 32.5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둔화
  - 2016.2분기 가계신용 1,257조원에서 카드로(22.6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 카드로 이용금액 증가율 : '13년 22.9% → '14년 13.1% → '15년 8.6% (14.3%p ↓)
- 카드로는 중신용 고객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상품특성상 4~6등급에서 80% 이상 발생하나, 카드사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로 연체율은 하락
  - 카드로 연체율은 중신용대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에 힘입어 하락세
    - 카드로 연체율 : '13년 2.64% → '14년 2.44% → '16.2Q 2.11% (0.53%p ↓)
- 2015년 카드로 평균금리는 15.3%로 기존 금융상품 중 가장 중금리대출에 근접
  - 금융위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7~15%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로 정의
  - 카드업권은 업권특성상 중신용등급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모델 보유

카드로 이용금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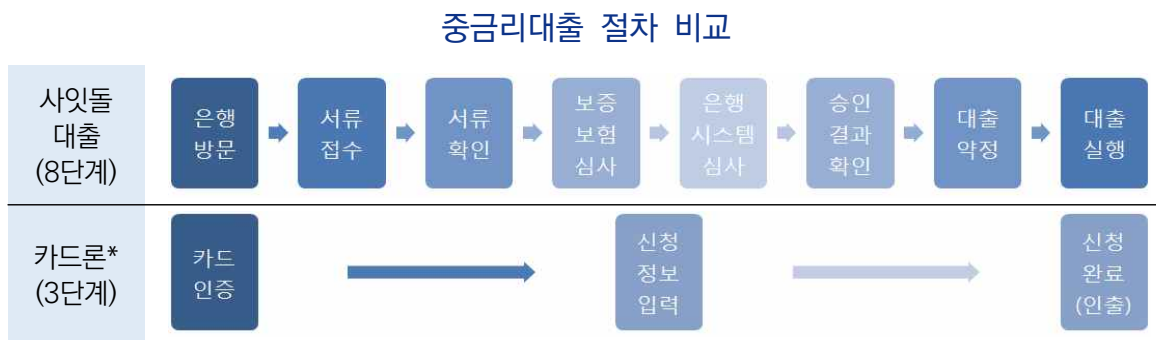
신용등급별 카드로 이용금액 비중 및 평균금리



자료 : 카드사 업무보고서(2015년 기준)

## 2.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따른 영향

- (단기) 대출 방법 및 기간의 차이로 중금리대출 증가가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카드로는 기존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하여 추가 서류나 절차 없이 편리하게 대출서비스 제공
    - ATM을 통한 카드로 이용 시 카드인증, 신청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완료
  - 일반적인 대출절차에는 서류 제출, 심사, 약정서 작성 등의 과정이 수반
    - '사잇돌 중금리대출'의 경우 서류 접수, 심사, 확인, 대출약정 등 대출실행까지 총 8단계 절차 수행
    - 모바일대출도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인증서 확인, 본인확인 전화 등의 절차 필요
    - P2P대출도 회원가입 및 질의응답 작성, 심사 등으로 대출실행까지 약1~2일 소요
  - 대출기간 측면에서도 카드로는 3~36개월인 반면,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최대 60개월이며 실제로 74.4%가 5년 분할상환 선택<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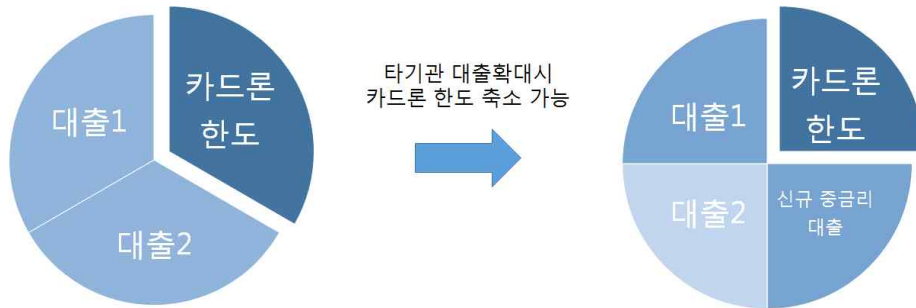


\* ATM을 통한 카드로 이용시

- (장기) 중금리대출 확대는 카드로 고객 유출 및 금리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카드로는 대출신청시 매번 한도와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타 기관 중금리대출 확대는 카드로 한도 축소 또는 거절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발급 시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되는 것과 상이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08.18), '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

### 타기관 대출확대시 카드로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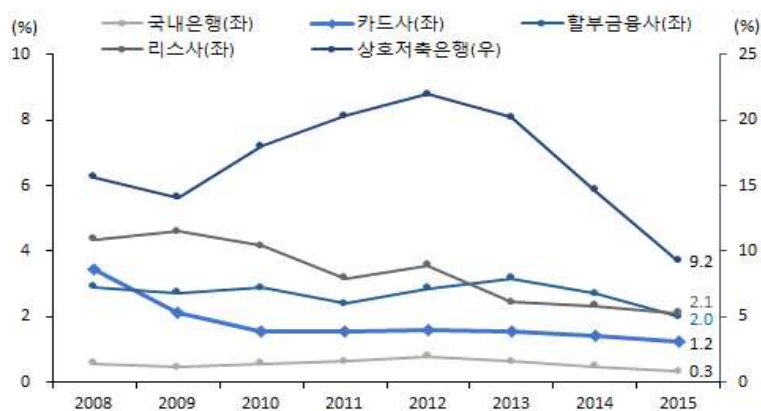


## 3. 카드업계 대응방안

### □ (단기) 중금리대출 시장경쟁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건전성 확보에 주력

- 중금리대출 활성화 초기 단계로 대내외 여건 감안시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 존재
  - 중신용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신규 중금리대출 상품에 대한 연체율 추이 모니터링 필요
    - 우리은행 위비중금리대출 연체율 : '16.1월 1.88% → '16.6월 3.3% (1.42%p ↑)
  -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조달금리 상승 위험 존재
- 카드업권 여신건전성은 높은 수준이나 중금리시장 활성화에 따른 다중채무자 증가를 경계하고 건전성 확보에 주력
  - 금융업권별 연체율(2015년 기준) : 은행 0.6%, 카드사 1.2%, 할부금융사 2.0%, 리스사 2.1%, 저축은행 9.2%

### 금융업권별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장기)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카드론의 장점을 살린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대출상품 개발
  - 중신용대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의 고도화 필요
    -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있는 우량 중신용고객을 구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여신건전성 저해 없이 경쟁력 강화 가능
    - 카드사용금액, 연체이력 외에도 구매목록, 사용시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분석기법 개발 필요
- 높은 여신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중금리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론 상품 특성 강조
  - 중신용고객의 신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카드론은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정금리를 산출하여 중금리대출 공급에도 연체율은 오히려 하락
    - 카드론 연체율 : '13년 2.64% → '14년 2.44% → '16.2Q 2.11% (0.53%p ↓)
  - 카드론은 추가 서류나 절차 없이 ATM에서 카드인증만으로 즉시 대출 실행
    - 일반 신용대출 시 7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카드론은 3단계로 구성



## 〈붙임1〉 중금리대출 정의 및 시장구조

### □ 중금리대출은 4~6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10% 전후의 신용대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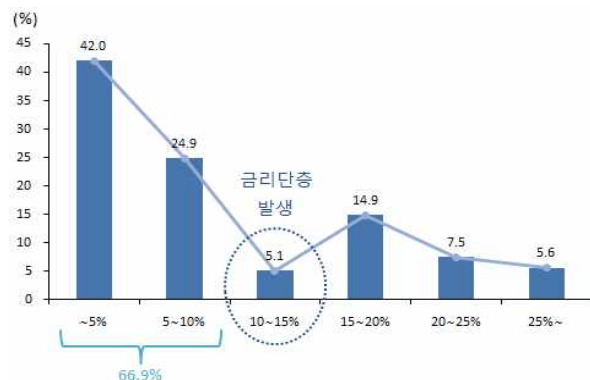
- 대출수요가 신용등급에 따라 선형으로 우하향하는 반면, 공급은 중금리 구간(10~15%)에서 급락하며 수요-공급의 불균형 발생
  - 신용등급별 대출거래고객 비중 : 1~3등급(52.4%), 4~6등급(33.0%), 7등급 이하(14.5%)
  - 금리구간별 신용대출 잔액 비중 : 5% 이하(42.0%), 5~10%(24.9%), 10~15%(5.1%), 15~20%(14.9%), 20~25%(7.5%), 25% 이상(5.6%)
-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요층인 우량 중신용자 선별이 선행되어야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형성 가능
  -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타겟수요층 선정과 특화된 건전성 관리 필요
    - 2005년 SC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인 '셀렉트론'을 출시하였으나 부실 확대로 2013년말 판매중단
  - 신용등급이 하락할수록 불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부실우려 존재
    - 신용등급별 불량률<sup>14)</sup> : 1~3등급(0.06~0.3%), 4~6등급(0.54~2.03%), 7~10등급(6.30~36.02%)

신용등급별 대출거래고객 분포



주 : 7등급은 누적분포 상위 85.5~91.0%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량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저신용자로 분류  
 자료 : NICE평가정보('15.12월 기준)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잔액 분포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5.12월)

14) NICE평가정보('16.03월 기준)



---

## | 참고자료 |

### 〈국내문헌〉

관계부처 합동(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등), 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자료, 2016.7.1.

금융위원회, 2016, 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2016.6.7.

금융위원회, 2016, 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 2016.8.18.

금융위원회, 2016,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 2016.8.29.

금융위원회, 2016,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1.28.

금융위원회, 2016,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7.5일부터 판매, 보도  
자료, 2016.6.23.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2015.1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Fintech편)』, 2016.1.

### 〈웹사이트〉

NICE 평가정보 [www.niceinfo.co.kr](http://www.niceinfo.c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http://www.fss.or.kr)

금융통계정보시스템 [www.fisis.fss.or.kr](http://www.fisis.fss.or.kr)

한국은행 [www.bok.or.kr](http://www.bok.or.kr)